

□ 107주년 노동절 맞이한 노동계 정세전망

# 벼랑끝 몰린 노동계 회생의 길 보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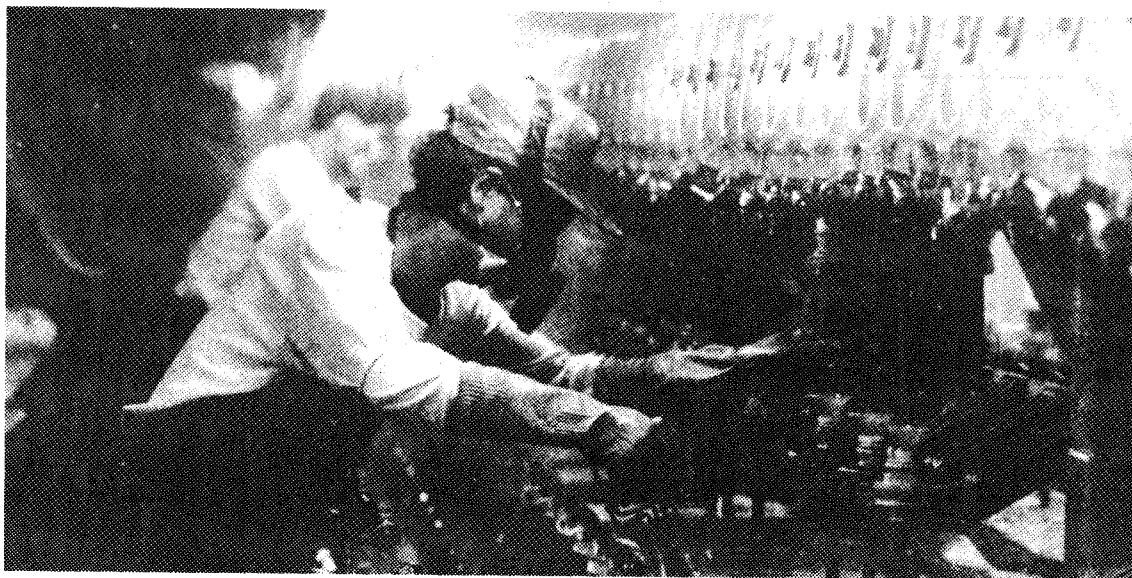
강 연 자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절은 1889년 7월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일에 세계 20개국 3백91명의 노동조합 대표가 모여 개최한 '국제노동자 대회'(제2인터내셔널) 창립 대회로부터 출발한다. 이 대회에서는 1886년 5월 1일 일어난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미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기념하고 목숨을 바쳐 투쟁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5월 1일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함으로써 올해 107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세계 노동절은 이렇게 고난에 찬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 그들의 위대한 회생을 추모하는 날이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가 파업과 집회, 시위를 통해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기도 하고, 전세계 노동자는 같은 처지에 있는 한 형제이며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절은 선배 노동자들의 회생을 기념하고 단결을 과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자 앞에 놓여 있는 요구를 해결할 것을 결의하는 투쟁의 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23년 최초로 노동절 기념식이 시작되었다. 일제 치하에서 노동절 투쟁은 '8시간 노동제'와 최저임금의 확정, '4할 소작료'와 지세의 지주 부담'등을 요구하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해방 이후도 '8시간 노동제 실시', '친일파, 민족반역자, 모리배 숙청', '노동자를 보



▲수많은 직업병 환자를 만들어낸 원전레이온 공장의 작업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 노동악법 무효화 투쟁 전면선포 97 임단투 새로운 노사관계 시금석될듯

호하는 노동법 개정'등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1959년부터 자유당 정권과 대 한 노총에 의해 3월 10일로 날짜가 바뀌고, 1963년부터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어 정부의 비호 아래 행사가 치러져 왔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민주노조 세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민주 노동운동 세력은 정부의 갖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세계 노동절을 부활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89년부터 1993년 까지 해마다 수만명의 노동자가 참

가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모아 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힘차게 치러왔다. 1994년 정부는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는 법률을 확정, 공포하였는데 이는 민주노동운동 진영의 노동절 확보 투쟁의 자랑스런 성과물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노동절 투쟁은 항상 당면 노동자들의 요구투쟁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107주년 을 맞는 올 메이데이도 노동자들은 많은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

로 통과된 노동악법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은 전국적인 노동자 총파업 투쟁으로 항의하였다. 하지만 노동법의 재개정이란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은 개악으로 점철되어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은 완전 부정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눈 앞에 다가와 있다.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3자 개입 금지, 약간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금지의 테두리에 묶여 있고, 정리해고제와 변경근로가 전격 도입되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파업시 대체근

로 허용, 무노동 무임금의 명문화, 교섭권과 체결권의 단일화로 노동조합의 힘을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독소조항들이 첨가되었다. 한편 자본의 총체적 공격으로 단위현장 조직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상실감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법 재개정 성과로서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87년 이후 민주노조 운동의 집약적 성과인 민주노총은 이제 합법화의 길로 들어섰다. 또한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자들의 총력 투쟁의 위력을 실감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받아 민주노총은 합법화의 장점을 살려 조직 확대와 대폭적인 사업확장을 기획하고 있다. 특히 임단투를 맞이하여 노동악법 '불복종 운동'과 '무효화 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107주년 노동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와 있다. 100여년 전 목숨 바쳐 투쟁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당면한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제 97 임단투는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노동법 개악의 시행이 눈 앞에 다가와 있고 단위 현장의 탄압이 강화되는 조건과 전제적 자본의 신보수주의 공격이 전면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노조 진영이 총파업의 성과를 집약하여 전국적 전선을 구축하지 못한다면 개악된 노동법의 무효화와 산별노조 건설, 노동자 정치 세력화는 더욱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조 진영은 97임단투에 총력 집중, 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세 시 봉

#### 고속병과 고속전철

최수정 취재부장

인간이 존재론에 관한 질문에 부닥칠 때 흔히 우리는 시지프스의 천행을 떠올린다. 한없이 떠메고 올라야 하는 바위와 어김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 1997년 한국땅에서 산다는 것은 수다스런 일상조차도 시지프스처럼 살기를 강요당하는 것이다.

삼풍과 성수대교는 한갓 아련한 전설이 되었을 뿐인가? 저 시지프스의 신화와 같이, 우리의 모든 건설공사는 끝없이 무너짐만을 강요당한다.

5조 8천억원이란 천문학적 수치의 세금을 들여 지난 89년 시작한 경부고속철도 사회간접자본(SOC)의 구축이라는 대전제 앞에 모든 진중한 반대를 사소한 시미겨리로 치부하고 시작했던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가 단군 이래 최대의 부실이라는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고속국도 다섯 시간 거리를 한 시간 반의 거리로 단축한다는 장미빛 약속은 이제 그 내배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루기 어려운 꿈이 되었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시험구간의 개통도 일러야 2001년이 되야 가능한데 지금 프랑스에서 제작중인 경부고속철도의 차량 및 장비가 내년 4월이면 들어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중고기차를 타야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정부와 프랑스 쪽과의 차량도입 계약상 품질 보증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경부 고속철도는 품질 보증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운행될 전망이다.

지난 30여년간 '빠름'은 우리의 신앙이었다. 느린것은 도태를 의미했고 빠른 것만이 발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졌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10년이 걸렸던 기본설계를 한해 동안 후속 해치우고 2000년이 되면 서울부산간을 반나절만에 왔다갔다하자고 호들갑을 떨었던 지도 모른다.

하지만 빨리 세워진 것은 반드시 빨리 무너졌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고속병'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빨리 빨리'를 외치면서 그럴듯한 모양새로 전국민적인 사기를 찼던 이들에 대한 분노를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책임은 잘못하는 몇몇 사람에게 있지만 잘못을 방관하고 쉽게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 현장취재

4·19혁명정신계승국민대회 열려

#### 대학로 한복판 전경과 힘겨운 몸싸움



▲지난19일 성균관대로 향하려는 학생과 이를 저지하는 전경이 대치하고 있다

'4·19혁명 정신계승 국민대회'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지난 19일 오후2시 중요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1천여명의 학생들과 1백여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해 김현철구속 및 대선 자금공개와 민주개혁취를 요구하였다.

1부는 삼미특수강 고용보장, 원전전문병원설립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4월, 그 가슴위로 문화공원이 있었으며, 3부 대회에서 이창복(전국연합상임의장)씨는 "혁명"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자, 국민, 학생, 모두 협력하고 있으므로 혁명완성은

얼마남지 않았다"라는 연설을 해 학생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받기도 했다.

집회후에는 동대문쪽으로 인도를 따라 가두시위가 이어졌다. 전경과 별다른 마찰없이 계속되던 시위도중 학생중에서 갑자기 '김영삼 정권타도'를 외치며 도로를 점령하자 근처에 있던 전경들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도하였다. 분산된 학생들은 대학로로 재집결해 투석전을 벌이는데 강하게 저항하였고 전경들도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사용하는등 약 두 시간동안의 지속적인 강경진압으로 시위가 일단락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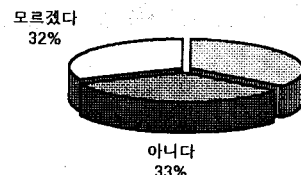
(최현일 기자)

□ 4·19 학생운동에 대한 여론조사

#### 사회불의 저항여부 '잘 모른다'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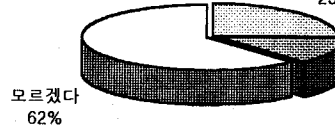
올 해는 4.19 학생의거 37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 최초의 대대적인 학생운동이었던 4.19는 폭압과 독재라는 불의에 당당히 대항했던 젊은 청년들의 의기로 이루어낸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같은 4.19가 현재 대학안에선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의 학생운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 신문에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편집자>

우선 대학 내 4.19정신의 계승에 대한 질문에 있어선 '대학 내에서 어느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에 35%의 지지를 보였으나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었다. 두번째 문항으로 4.19에서 나타났던 저항정신의 추구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통계상 '잘 모르겠다'라는 답이 62%를 차지해 큰 사회적 항 이슈가 없어진 현재를 반영하는 듯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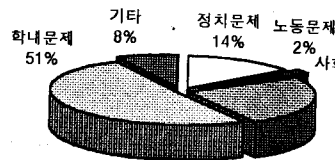


1. 현재 4·19가 대학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찬성하는 이유는 '양심상 국민의 의무'나 '배운 사람의 도리가 있었고 반대의 이유로 '관심 밖의 사항이다', '중요성을 모른다' 등이 있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재 학생운동의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학내문제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가 51%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정치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14%에 지나지 않아 '학내에서부터 시작하는 학생운동'



2. 만약 제2의 4·19가 다시 발생한다면 대항 할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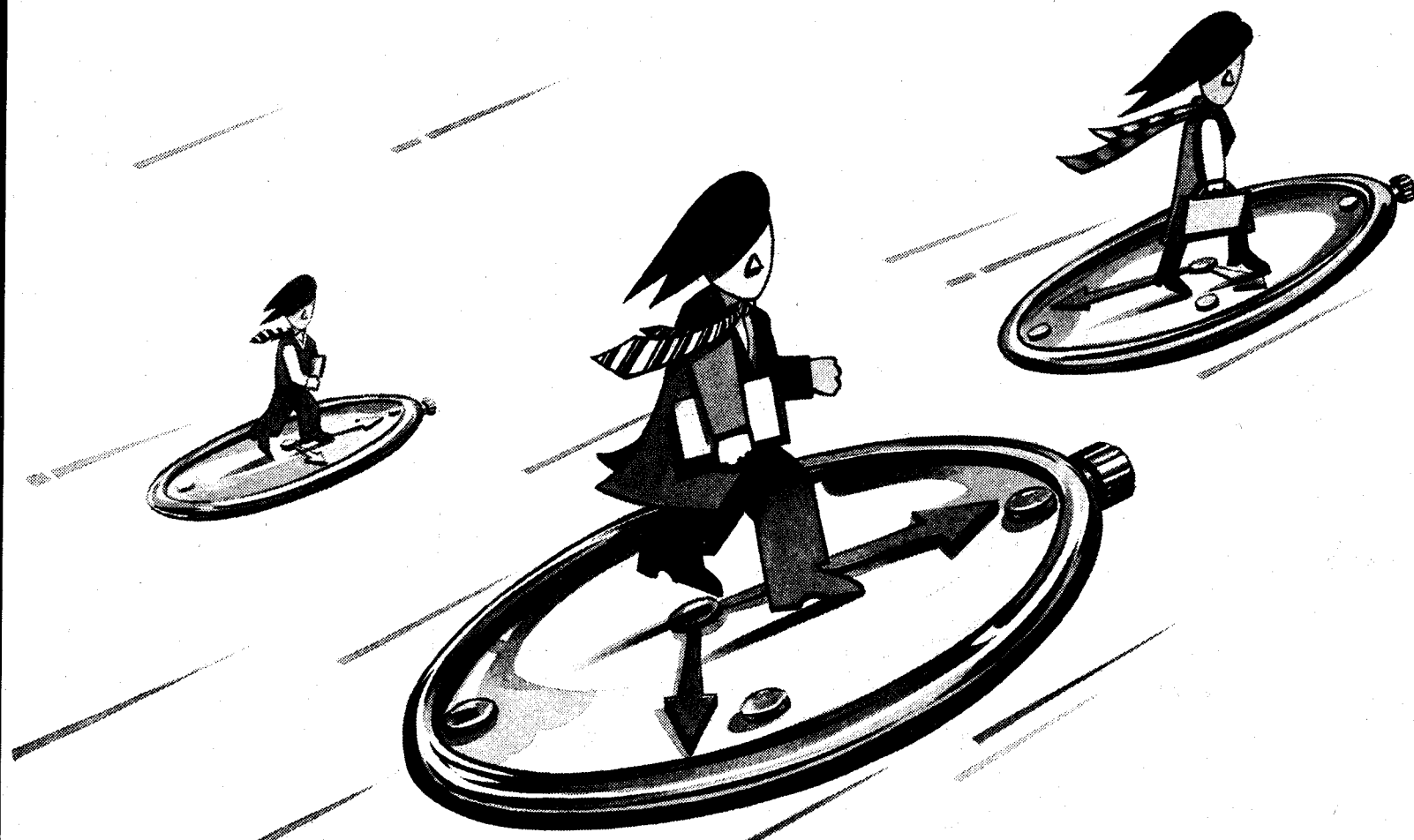


3. 현 사회에 있어서 학생운동은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지금 사회에서 학생운동의 나갈 방향이라 나타났다.

(표본집단: 서울·수원캠퍼스 재학생 각 60명)

조사기간: 97년 4월 21일~4월 25일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 앞서서 달리는 사람 심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심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주) 금 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